

선(善)에 이르는 길

- 아이리스 머독의 『바다여, 바다여』를 중심으로

전은경*

All power is sin and all law is frailty. Love is the only justice.

Forgiveness, reconciliation, not law.

- Iris Murdoch, *The Nice and the Good*

20세기 후반 영국현대소설의 문단에서 아이리스머독(Iris Murdoch)의 존재는 독특하다. 전후 영국의 주요 소설가로 손꼽히면서도 실험적 문학 기법과 미학적 주제에 몰두했던 대부분의 모더니스트/포스트모더니스트 작가들과는 달리 머독은 문학에서 도덕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하고 있다. 머독의 이러한 문학적 성향은 다른 작가들과는 다른 그녀의 지적 배경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머독은 41년에 걸쳐 26편의 장편소설을 출판한 다작의 작가로서 큰 인기를 누렸지만, 또 한편 옥스퍼드 대학교 세인트 앤즈 칼리지(St Anne's College)의 철학교수이었다.

‘선(善)’의 주제는 머독이 꾸준히 탐구한 철학적 주제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선의 지고성』(*The Sovereignty of Good*)이라는 저서에서 플라톤 사상의 윤리문제와 선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머독은 그러나 자신의 문학작품들이 ‘진정한’ 철학과는 혼동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소설에서 철학을 공공연하게 논하거나 작중인물들을 윤리나 도덕적 이론의 대변인으로 삼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문학에서 도덕은 인간의 삶의 근간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선’에 대한 머독의 연구는 주로 197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물로서 철학서로는 『선의 지고성』(1970)과 『불과 태양: 왜 플라톤은 예술가를 추방했을까』(*The Fire and the Sun: Why Plato Banished the Artists*) (1977), 소설로는 『흑태자』(*The Black Prince*)(1973)와 『바다여, 바다여』(*The Sea, The Sea*)(1978)의 출간이 있다. 두 철학서와 두 소설은 머독의 가장 대표적 저서와 작품으로 손꼽힌다. 선에 대한 인식에 있어 비슷한 시기에 출간이 이뤄진 만큼 이들 철학서와 소설들 간에 서로 공유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선함(“goodness”)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일컫는가? 인간은 도덕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까? 한 인터뷰에서 “선함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선함이 구현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머독은 이렇게 답했다.

미덕이란 타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진정으로 인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것[미덕]은 실로 자유로움을 준다. [...] 자유란 나라는 존재와는 현격하게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이다. 미덕은 이러한 의미에서 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우리를 참된 리얼리티와 연결해준다.

(‘The Sublime and the Beautiful Revisited’, in the *Yale Review*, Vol.49 pp.269-70 재인용 *Iris Murdoch: the essential guide*, M. Reynolds and J. Noakes 13-4)

위 인용에서 주장했듯이 머독의 선(‘goodness’)의 개념에는 “타인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미덕의 전제조건으로 되어있다. 『선의 지고성』에서 머독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는 “근본이 이기적인

우리가 이기적인 속성을 지닌 에너지를 정화하고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에너지]을 재정비하는 것”(SG 54)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기심의 극복을 또한 선의 조건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선이란 의지가 아닌, 초월적인 것”(SG 69)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지”에는 “자아(“self”)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선의 지고성』에 나타난 머독의 말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대면하는 것을 꼭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늘 근심에 매어있는 존재이다. 우리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근심에 차서, 대체로 자아에 함몰된, 거짓된 베일을 짜고 있으며 이것은 세상을 부분적으로 가리게 된다. 질적으로 다른 우리의 의식 상태에서 환상과 몽상은 결코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 . .]. 우리의 의식을 이기적이지 않으며 객관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미덕은 리얼리즘과 연결되어야 한다. (SG 368-69)

에고이즘에 바탕을 둔 우리의 의식은 세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하고, 우리의 심리적 필요에 따라 디자인된 환상을 지어내게 되는데 선이란 이러한 이기적인 우리의 의식을 초월할 때 타인, 그리고 리얼리티에 대하여 본연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리얼리티에 대한 이기심이 배제된 인식, 그 자체가 바로 다른 존재에 대한 인정이 될 것이다.

『바다여, 바다여』에서는 선에 대한 머독의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가 잘 나타나 있으며, 더 나아가 이것이 ‘힘’, 또는 ‘권력’(“power”)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탐구하고 있다. 여기서 힘/권력의 속성에 대한 머독의 생각을 또한 살펴볼 수 있다. 머독은 『바다여, 바다여』가 출판된 해인 1978년 11월 영국 BBC 방송에서 가진 이 작품에 대한 인터뷰에서 또한 『바다여, 바다여』의 주인공 찰스를 셰익스피어의 『폭풍』의 주인공 프로스페로에 비유하며 “힘을 휘두르는 자”로 표현하면서 “선으로 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선으로 향하는 길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한” 장애물은 무엇인지, 이 ‘힘’의 속성에 대해 머독은 어떠한 생각을 지니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녀의 사유가 이 작품의 중심적 주제로 생각된다.

『바다여, 바다여』라는 제목은 폴 발레리(Paul Valéry)의 시, ‘바닷가의 묘지’(‘Le Cimetière marin’)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바다’는 삶에 대한 하나의 메타포로서 선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삶의 여정은 광풍이 몰아치는 위험한 바다와 같이 험난하며, 그 영적인 광활함 속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바다는 이러한 맥락에서 티벳 불교의 개념인 “바르도”(“bardo”), 기독교적으로는 “림보”(“limbo”), 또는 호메로스의 “하데스”(Hades)(Sea 384)에 해당하는 영적 상태로 볼 수 있겠다. 『바다여, 바다여』에는 주요 인물인 두 사람, 예술가 찰스와 성자, 또는 “고행하는 수도사”와 같은 제임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선’이라는 철학적 주제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II.

『바다여, 바다여』의 주인공 찰스 애로비(Charles Arrowby)는 영국 연극계에서 대단히 성공한 연출가, 배우, 극작가로서 런던에서 활동하다가 60세가 되자 화려하고 복잡했던 삶을 청산하고 세상으로부터 은퇴하여 남은 여생을 조용히 명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고록을 쓰면서 보내고자 한다. 그는 영국 해안가 쉬러프 엔드(Shruff End)라는 곳에 마을에서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을 구한다. 이 집은 바다를 향하여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 작품의 시작에서 찰스는 이렇게 다짐한다.

이제 내 인생에서 주요한 일들은 다 지나갔고 오직 '고요함 속의 회상'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기적이었던 인생을 후회하기 위해서냐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도 그와 비슷한 것이다. [...] 이제 나는 마술을 포기("abjure magic")하고 은둔자가 되려고 한다. . . . 내가 할 일이라곤 선량하게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learn to be good"). 인생의 끝이 명상의 시기라는 생각은 옳다고 본다."(Sea 1-2)

찰스는 자신을 셰익스피어의 극 『폭풍』(Tempest)의 주인공 프로스페로로 비유한다. 바닷가에 외따로 있는 그의 집은 프로스페로의 마법의 섬을 연상시키며, 나이가 든 프로스페로가 홀로 지내며 과거를 속죄하려 했던 것처럼 찰스 역시 자신이 그 동안 몸담아 왔던 세상을 떠나 에고이즘의 삶을 누우치고 마술을 부리기를 그만 두려고 한다.

그러나 과거는 찰스가 조용한 삶을 누리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과거에 맺었던 인연과 인과관계("causality")는 다양한 형태로 바닷가에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평화로움을 방해한다. 옛 애인들, 극장의 동료들, 친구들이 계속하여 그를 찾아오는데, 찰스를 사랑하는 동성애자 길버트(Gilbert Opián)는 홀로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면서 쉬러프 앤드에 와서 식사와 청소 등 집안의 허드렛일들을 하겠다고 자청하며 집안의 온갖 굵은 일들도 맡아 한다. 여배우이자 찰스의 과거 연인들이었던 리지와 로지나가 오고 남자 배우인 페리그린도오며 찰스는 또 다시 인간사의 복잡한 갈등에 휘말리게 된다.

찰스는 영국연극계의 최고의 실력자였으며, 또한 권력자이기도 했다. 그의 탁월한 연출 솜씨에 관객들은 마치 마법에 홀린 듯 매료되었고,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은 남녀를 불문하고 최고의 배우들을 그의 주변에 끌어 당겼다. 그는 연극계의 최고의 스타로 사람들에게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군림해 온 독재였다. 찰스의 "마술"은 예술적 기교일 것이고 그의 재주와 매력은 사람들에게 큰 위력을 지녔다. 로지나는 찰스가

젊었던 시절 그가 발휘하는 “매력”(“charm”)을 “힘”(“power”)으로 동격시킨다(Sea 314: 이후작품의 쪽수만 표기). 찰스가 연극계에서 발휘했던 예술적 힘의 행사는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조종하는 마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며 살아왔던 찰스의 마음이 처음으로 동요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는 소년시절의 첫사랑이었던 메리 하틀리를 우연히 이 마을에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찰스를 떠났던 하틀리는 벤 피치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근처의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하틀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초라한 행색을 한 평범한 아낙이었지만 그녀를 보자 찰스의 마음은 옛날로 돌아간 듯하다. 찰스의 기억 속에 있는 하틀리는 그의 단 하나의 순수하고 정신적이며 이기적이지도 않은 사랑의 지표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찰스는 순수함을 회복하고 자신이 저질러온 악과 부패를 정죄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존재가 되고자 했을지도 모른다.

이윽고 찰스는 하틀리를 자신의 배우자로 삼아 같이 여생을 보내고자 계획한다. 하틀리를 남편으로부터 빼앗아 그녀와 더불어 살게 된다면, 자신의 젊었을 때의 순수함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녀를 남편에게서 빼앗아 올 궁리에 몰두한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급기야 찰스에게 현실에 대한 왜곡된 믿음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는 하틀리가 남편에게서 괴롭힘을 당하며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남편에게서 그녀를 구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

찰스의 개인적 욕망은 타인들에 대한 오류의 허상을 만들어낸다. 그는 하틀리의 남편 벤을 불구자로 자식도 낳을 수 없는 불모의 인간으로 치부하는가 하면 그를 노동자라고 경멸하고 체격도 왜소하고 의치증이 심해서 부인을 학대하고 의심하는 “질투심 많은 야만인, 폭군”(156)과 같은 인간이라고 믿게 된다. 그리고 하틀리에 대해서도 이제 늙어 주름진 얼굴

에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찰스는 그녀를 전통적인 러브 스토리의 여주인공으로 간주함으로써 그녀의 객관적 실체(reality)와는 무관한 허구적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처럼 열에 들뜬 듯한 찰스의 태도에 대하여 하틀리의 반응은 극히 방어적이며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러한 하틀리에 대하여 찰스는 후에 “그녀는 거대한 부재”(170), 또는 “이상하게도 텅 비어있는”(493) 얼굴로 회상했다. 하틀리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하틀리에 대한 그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환상, 또는 질투심과 분노에서 유발된 집착으로 생각된다.

하틀리를 정복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찰스는 과거 연극계에서 휘둘렀던 ‘힘’을 다시금 행사하고자 한다. 하틀리와 벤에게는 양자로 들인 타이터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는 가출한 후 2년 동안 떠돌다가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오는데 우연히 쉬리프 앤드에서 찰스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호감을 느끼는 타이터스는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지낸다. 찰스는 타이터스를 미끼로 하여 하틀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그녀를 방에 감금한다. 그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녀를 자신의 세계 안에 구속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감금된 하틀리보다 찰스 자신이 오히려 우리에 감금된 동물처럼 집 주변을 뛰어다니듯 걷고 자학적으로 행동한다. 찰스는 환상의 포로가 되었으며, 스스로가 고안해 낸 방안에 자신이 스스로 갇히고 말았다.

찰스가 곤경에 처해있는 시점에 평소 서로 연락이 없이 지내던 비슷한 연령의 사촌 제임스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찰스를 찾아온다. 그러나 제임스에 대한 언급은 소설 시작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찰스가 서로 교류는 없어도 늘 제임스를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의 신비로운 면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경외심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찰스는 어린 시절에 대한 회고에서 제임스를 부러워하고 경탄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짐짓

경멸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는데, 가난하고 소박했던 자신의 부모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 아래서 유복하게 자라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모든 훌륭한 조건을 두루 갖춘 제임스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다. 제임스는 찰스에게 하틀리를 풀어 주도록 설득하고 “지금 너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일 뿐이야. 최면에 빠진 것처럼”(353)이라고 말하며, 그녀가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상황을 정리한다. 이어서 그는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러한 무익한 허상을 만들어 낼 수 있지”라고 말하며 그녀를 “리얼”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고 찰스에게 충고한다(352-53).

제임스는 전쟁 중에 특수부대의 그린자켓(Green Jackets) 대원으로 종사했으나 전후 인도를 거쳐 티벳으로 가서 영적인 수련을 받은 사람이다. 그곳에서 평신도 불자로서 자신이 수행하는 수도원에 경제적인 원조도 했다. 제임스는 영적으로 발달한 존재이지만 찰스가 그를 싫어하고 멀리했기 때문에 그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러나 찰스는 런던의 한 미술 갤러리에서 자신이 갑자기 졸도하게 되었을 때 예기치 않게 제임스가 나타나 그를 구하는 등 제임스가 보이는 불가사의한 신비한 힘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는 있다.

소설이 진전되어감에 따라 비록 표면상의 스토리는 찰스에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품의 비중은 점차 제임스에게 옮겨간다. 제임스의 등장으로 인하여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며 마치 런던에서 찰스가 그러했듯이 제임스는 이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끌어 모으는 “마력의 중심”(“a centre of magnetic attraction”)이 된다(328). “성자”나 “수도하는 고행자”와도 같은 제임스는 사람들에게 이성적이고 사려 깊은 충고도 하며 그 자신 의식하지는 않지만 그는 영적으로 큰 힘을 보인다. 그의 반듯한 인품과 진실로 선량함에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보게 된다.

이후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며, 제임스의 불가사의한 신비스러운 힘이 발휘된다. 어느 날 저녁에 찰스가 ‘민의 가마솥’(Minn’s cauldron)이라

고 불리는 위험한 소용돌이가 이는 바다 위에 걸쳐있는 돌다리를 건너는데 어떤 손이 그의 등을 떠밀어 그는 수심이 20피트나 되는 물에 빠지고 만다. 이 때 제임스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찰스를 물 위로 들어 올려 구한다. 누구도 제임스의 구출행위는 목격하지 못했고, 다만 후에 찰스는 일기에서 이 체험에 대하여 쓰면서 그 때 제임스가 미끄러운 바위만으로 이루어진 그곳에 내려와서 손으로 찰스의 팔 아래를 부축했는데 마치 구명복이라도 입은 것 같이 자신을 들어 올렸다”고 하며 그때 제임스는 마치 “물위를 걷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며, 그 불가사의한 능력에 대하여 의아해한다 (468).

찰스를 구출한 후 제임스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되어 침대에 눕게 된다. 그는 힘이 소진되어 자신의 에너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회복기에서 나눈 찰스와 제임스의 대화는 다분히 불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임스와 찰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며 이들은 타이터스가 익사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타이터스의 죽음 소식을 접하자 제임스는 “내가 붙어 있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며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는다. 사실 타이터스를 쉬러프 앤드로 오게 한 장본인은 제임스 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신적 힘을 이용하여 타이터스를 이곳에 오게 한 후 그를 부모에게 되돌려 보내고자 했었다.

그동안 찰스와 타이터스 두 사람 모두 제임스가 그의 영적인 힘으로 보호하고 관리해 왔는데, 이번에는 위기에 빠져있는 찰스는 구했지만 어린 타이터스를 그만 놓치고 만 것이다. 불교이론에서는 신자가 사랑하는 자를 마음에 굳게 붙들어 두고 있을 때에는 사랑을 받는 자는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다. 제임스가 오로지 찰스에게만 정신을 과도하게 집중하는 바람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이 소진되어 타이터스에 대하여는 그의 영적 힘이 끊겼고, 그를 마음에서 놓쳐버렸다. 후에 찰스는 이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한다.

그[제임스]가 마음의 축수를 뺏어 타이터스를 발견해 내고 이곳으로 데려왔으며 그를 실로 묶어 보호하다가 제임스가 바다에서 나를 끌어올린 후 이상하게 앓아 누웠을 때 타이터스에 대한 그의 주목의 끈이 끊어져 버렸을까? 타이터스의 죽음에 대하여 그것이 마치 거의 자신의 실수라도 되는 것처럼 제임스는 ‘일어나지 말도록 했어야 했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만일 그것이 그의 실수라면 그것은 또한 나의 실수이기도 하다. 죄에는 무자비한 인과응보가 따르는 법이다. [. . .] 제임스의 허영심이 세르파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처럼 나의 허영심이 타이터스를 죽게 한 것이다. 두 경우 다 우리의 약점이 우리가 사랑했던 것을 파멸시켰다. (471)

제임스는 몇 년 전 영적인 힘을 남용하여 희생자를 낸 적이 있다. 동양에서 그는 마법(magic)처럼 보이는 여러 “재주”(“tricks”)를 배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던 세르파와 함께 눈덮힌 티벳의 산을 훑은 속에서 무리하며 건너다가 자신이 배웠던 정신의 집중을 통해서 몸의 체온을 끌어 올리는 재주를 사용하려 했으나 실패하는 바람에 그를 믿고 따라나선 세르파는 그의 팔에 안긴 채 죽고 말았다. 제임스는 찰스에게 “그는 나를 믿었어 . . . 그를 죽인 것은 내 허영심이야 . . . 잘못에 대한 대가는 자동적으로 오는 법이지 . . . 어떠한 실수에도 꼭 작용하게 되어있어 . . . 그에 대한 나의 영향력이 느슨해져 있다가 . . . 그만 나의 통제하는 힘을 상실해 버렸어 . . . 운명의 수레바퀴는 공정해”라고 자신의 과오를 토로한다(447). 세르파의 죽음 이후 제임스는 자신의 허영심을 뉘우치며 회한 속에서 몇 년을 보냈다. 그러다가 또다시 타이터스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그는 선에 이르는 길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선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려 한다.

제임스는 “여행을 떠난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찰스의 집에 들리는데 이때 그는 지상에서의 모든 오해를 풀고 죽음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85). 제임스는 찰스에게 선과 종교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긴다.

그러나 이 힘은 무시무시한 것이야. 우리의 욕정과 집착이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지. 그리고 한 가지 집착이 사라지면 그에 대한 위로를 하듯이 또 다른 집착이 나타나지. 우리는 결코 쾌락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아. 단지 다른 쾌락으로 교환할 뿐이지. 영적인 것은 그 어느 것이든 마술로 퇴보하는 경향이 있고 마술을 사용하게 되면 마음에서 추악한 습관을 강화시켰을 때조차도 자동적으로 인과응보를 받게 되어 있어. 선한 마술이라도 결국은 악한 마술이 되기 마련이지. 정신세계에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악마를 키우는 것과 다름없어. 선한 목적으로 사용했던 악마라도 주위를 맴돌다가 결국은 해를 끼치게 돼.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것은 마술 그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 소위미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끝장내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해내지? 선은 힘을 포기하고 그럼으로써 세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 선이란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 것이니까.

(445)

이어지는 제임스의 죽음 - 또는 사라짐 - 은 그가 마지막으로 보인 신비한 행적이다. 제임스가 런던으로 돌아간 후 찰스는 제임스의 의사로부터 편지를 받는데, 그는 제임스가 신비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았다고 말한다. 찰스도 독자도 그가 실제로 죽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찰스는 그의 '죽음'은 비밀정보국에 의해 자행된 것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가 매우 은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티벳에 파견되어 갔을 것이라는 추측도 한다. 제임스의 전문의인 티벳 출신의 인도인 의사 트샹(Dr Tsang)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제임스가 열반("Nirvana")라는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여 이제 "바퀴"("Wheel")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처럼 보였다고 수수께끼 같은 설명을 한다(385). 제임스의 죽음에 대한 의사의 설명은 그 자신의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찰스는 이후 보다 심오한 그 무엇인가가 자신의 삶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그동안 견지해온 유아론적(solipsistic) 사고와 자기 합리화에 대하여 반추하게 된다.

머독은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에 관한 신화를 창조하고 그 신화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선택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이 생각은 찰스에게 잘 적용된다. 연출가였던 찰스는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배우들을 움직이는 독재자이자 관객들을 마술에 빠져들게 하는 마술사였다. 극장에서 그가 연출한 극들은 “덧없는 작품들, 마술적 환상, 불꽃놀이”(35)로서 삶의 실체와는 동떨어져 있는 세계였고, 그 세계에서 찰스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보지도 않는 욕심 많은 마술사”(44)로 군림해 왔다. 그는 철저하게 자아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유아적 환상에 사로잡혀 타인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환상을 덮어씌우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파괴했다. 찰스는 프로스페로처럼 “하얀 마법”(“whitemagic”)을 성취함으로써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진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마법사 찰스는 힘, “마술 그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될 것이다.

작품이 끝날 무렵 찰스는 자신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발달되었다고 여겨왔던 제임스 또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 않았는지 의문한다.

인간의 허영심, 질투, 탐욕, 비겁함이 다른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도록 얼마나 많은 치명적인 동기가 될 올라미들을 이 지구상에 깔아 놓았을까! 내가 바다로 갈 때에 나는 세상과 인연을 끊는다고 상상했었던 것이 이상스럽게 여겨진다. 사람은 한 형태의 힘을 포기하면 다른 형태로 된 힘을 움켜쥘다. 어쩌면 보기에 따라서는 제임스와 나는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지 않았을까? (500)

찰스와 마찬가지로 제임스 역시 힘의 유혹에 휘둘렸다. 예술가로서의

찰스의 “마법”(마력)이 좀 더 세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고행하는 수도승, 성자와 같은 제임스의 “마법”은 신비하며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었을 뿐 작품에서는 이들의 마법은 똑같이 “재주/묘기”(“tricks”)로 표현됨으로써 이들이 지닌 힘의 도덕적 가치의 부재를 암시한다.

두 사람 똑같이 이 마력/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 보인다. 제임스는 선을 위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자 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타이터스의 죽음이었다. 타이터스를 오게 한 것부터 일련의 비극적 사건들이 이미 시작되었다. 제임스는 선의에서 타이터스를 찰스에게 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 그리고 비록 결과적으로 찰스의 생명을 구하기는 했지만 마법과 같은 영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의문이다. 여기서 제임스의 오류는 높은 영적 상태에 이르기 위하여 불교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영적인 힘을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힘의 구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점이다.

제임스는 찰스가 하틀리의 삶과 타이터스에게 일으킨 혼란을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종의 “선의의 마법”(“whitemagic”)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용해도 된다고 믿었다. 제임스는 타이터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다른 인물들에게도 똑같이 그의 힘을 사용했다. 머독은 어느 인터뷰에서 제임스를 가리켜 “길을 잃은 영혼”(“lostsoul”)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비록 제임스가 오랫동안 수련하여 영적인 삶을 성취했다 해도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힘에 대한 집착과 권력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제임스는 자신이 신과 같이 되려는 유혹에 굴복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성취해야 할 일은 마법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토로한다(445). 힘에 대한 세속적인 유혹으로 인하여 타인의 삶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소설이 끝나가며 찰스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다음과 같이 말

하는데 여기에 소설의 중심적 메시지가 들어 있는 듯하다.

종교는 힘이다. 정말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독이기도 하다. 힘을 행사한다는 것은 위협한 즐거움이다. 아마 제임스는 마술로 타락해 버린 영성(靈性), 즉 잘못된 신비주의의 짐을 단순히 내려놓고 싶었을지 모른다. [. . .] 지금 애처롭게 나는 제임스의 마지막 방문이 지냈을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다. 제임스는 나와 화해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이지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즉 인연을 끊으러 온 것이지 완성시키기 위하여 온 것은 아니었다. (474)

제임스가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타인의 삶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해된다.

III.

소설의 끝에서 찰스는 런던으로 다시 돌아왔고 예전처럼 연출의 일에 새롭게 의욕을 보이며, 일본에서 온 초청장에도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 그에게 연정을 품고 다가오는 페리그린의 의붓딸과 점심을 함께 하려고 한다. 작품의 끝에서 찰스는 제임스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찰스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는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으며 예전에 지냈던 ‘힘’의 충동이 다시 일고 있음을 감지하는 듯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제임스가 말했던 것들을 기억하려고 계속 애쓰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속도로 그것들을 잊어가고 있는 것 같다. [. . .]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을까? 나는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1밀리미터의 100만 분의 1만큼의 정도일 것이다. 가

런한 그 망령(亡靈)("ghosts)들이 가버리면 남는 것이라곤 일상적인 의무와 일상적인 흥미일 뿐. 사람은 그저 조용히 살면서 조그만 선행을 하고,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다.(500-01)

머독의 주장대로 선에 이르는 길은 망망대해(茫茫大海)처럼 위험하다. 영적 수련생이었던 제임스는 깨우침을 갈망했고 '힘'을 발견해냈고, 선을 위하여 힘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남용했다. 찰스는 뭔가를 터득했는가? 불확실하다. 그러나 삶에서 선이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문헌〉

Murdoch, Iris. *The Sea, The Sea*. Penguin Books: London, 1978.

Reynolds, Margaret & Jonathan Noakes. *Iris Murdoch: the Essential Guide*.
Vintage: London, 2003.

Spear, Hilda D. *Iris Murdoch: Macmillan Modern Novelists*. Macmillan: London,
1995.

Todd, Richard. *Iris Murdoch*. Methuen: London & New York, 1984.

〈Abstract〉

On Toward the Goodness in Iris Murdoch's *The Sea, The Sea*

Chun, Eun-Kyung

Morality is a centering subject in Iris Murdoch's works and the ethical perspective of what is the goodness is deeply implicit in her literary as well as philosophical works published during the 1970s. Iris Murdoch's *The Sea, The Sea* is a philosophical and religious novel with full of mysticism and her moral vision from the perspective of good and evil is explored in it. Though the narrator is Charles who is a retired theatre director, his cousin, James, a religious mystic with Buddhist beliefs, becomes the focus for the moral and religious thought in the novel. Though Charles has achieved worldly success he is a deeply frustrated man who is an egotist and lacks moral concepts. James tries to help him to renounce his solipsism implying a moral vision of the essential goodness.

The question of goodness in *The Sea, The Sea* is related not only with the subject of solipsism but also with that of power. For Charles an art has become a "magic" or "trick" and a means of wielding his power. James tells Charles that the core of goodness lies in giving up

power surrendering his “magic”. But as Murdoch referred to him, James is a “lost soul” too. James has confessed Charles he sacrificed a Sherpa’s life in the process of exercising his paranormal power for his own worldly use. Like Charles, James has an experience of attempting a magic(a trick) and power for others in his own way. But James fully recognizes the danger of exercising power and understands its consequences. At the end of the novel Charles adopts James’s position toward the goodness though the traces of his old self still remains.

Key Words: Goodness, power, solipsism, reality, magic, Tibet Buddhist beliefs, bardo, limbo